미국 대기업들 '트럼프에 반기'…정부와 갈등 예고

월마트·타깃, 中 공장과 거래 재개…아마존, 관세 표기 가격제 철회

미국 대표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거스르는 조치에 나서 미국정부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타깃이 미·중 관세전쟁으로 몇 주간 중단했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주문을 일부 재개하고, 전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추가된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백지화 했기때문이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관세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월마트와 타깃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몇 주 전 중단했던 주문을 최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고 미국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내 공장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산 제품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 경우 미국 소매업체 매장에 물건이 동이 나고 최소한의 공급망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장난감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뒤 지난주 월마트의 주문이 재개됐다고 CNN에 밝혔다.

중국 저장성 동부에서 수영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도 2주간 주문이 없었던 타깃에서 전날 주문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반면 코스트코와 샘스클럽 등 다른 고객사의 주문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유통업체들이 부분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하려는 것은 관세전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콩 신문 명보도 지난 26일 무역박람회에 참석한 도자기업체들을 인용해 월마트가 일부 중국업체에 주문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한 업체는 "주문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고 전했다.

아마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초저가 상품 '아마존 홀'(Amazon Haul) 스토어를 운영하는 팀이 특정 제품에 수입 비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으나, 이는 주요 아마존 사이트에 대한 고려 대상이 결코 아니었으며 아마존의 어떤 플랫폼에도 구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런 검토 내용이 승인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마존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을 때 왜 아마존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보도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전했다.

CNN과 NBC 방송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앞서 아마존 관련 내용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베이조스에게 직접 전화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CNN에 "물론 그(트럼프 대통령)는 화를 냈다"면서 "왜 수십억달러 규모의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CNBC는 이날 아마존에 대한 백악관의 공개 질타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이조스 사이의 새로운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마존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기금에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베이조스는 지난 1월 취임식에 참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은 중국산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와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포고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포고문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완화 조치는 이렇게 2년만 유지하고 끝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자라마나 마을에 무장 병력이 검문소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넌 나를 모욕했어' 시리아 종파간 유혈충돌 14명 사망

다마스쿠스 교외서 교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에서 종파 간 유혈충돌이 벌어져 14명이 사망했다고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SOHR에 따르면 전날 저녁 다마스쿠스 동남쪽 자라마나 마을을 정부군 측 무장대원들이 습격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드루즈족 무장대원들과 교전이 벌어졌다. 이곳 주민은 드루즈인과 기독교도가 대부분이다.

교전 과정에서 정부군 측 7명이 숨지고 여럿이 다쳤으며 드루즈족 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

양측이 총기는 물론 중화기까지 동원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SOHR은 최근 드루즈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녹취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며 종파적 반감이 촉발된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라마나의 드루즈 공동체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표적이 됐으며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비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문제의 녹취는 논쟁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당국이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내무부는 자라마나 외곽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발령하는 등 치안 유지에 나섰다.

내무부는 이번 사태를 "무장 괴한 집단 사이의 충돌"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만든 배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혼란을 조장하고 안보를 해치는 이들은 누구든 관용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블랙아웃'에 올스톱…아날로그를 '켜다'

전기·통신 의존 현대 사회 마비
정전 덕에 강제 '디지털 디톡스'
전기 들어오자 한마음 '환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8일(현지시간) 사람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로 전기와 인터넷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의 취약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낮 12시 30분께 갑자기 전기 공급이 차단된 스페인에서는 깜깜해진 저녁이 돼서야 전력망이 일부 복구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한창 바깥 활동을 하는 낮 동안은 그야말로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다.

지하철과 기차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승객들은 차 안에 갇혀 수 시간을 보내거나, 열차에서 뛰어내려 선로를 건너 인근 마을을 찾아가야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출신 관광객 아나 코르데로는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기차에서 3시간 동안 갇혀있었다.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개방했지만 결국 열차의 배터리도 방전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먹통인 상황에 정보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아날로그 라디오를 켰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 속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라디오를 켠 이의 주변에 십수 명이 모여 귀 기울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도로에 나간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고장 나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고, 낯선 곳에 여행 온 이들은 지도 앱 없이 길을 찾아야 하는 모험에 나서야 했다.

택시를 타려는 이들은 현금이 없어 거부당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마저 고장 나면서 추후 지불을 약속해야 했다.

대형 슈퍼마켓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문을 닫았고, 문을 연 상점들에서는 빵이나 우유, 물 등 기본 생필품이 빠르게 팔려나갔다.

남부 론다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손님들이 손전등 불빛으로 체크인하는 장면이 포착돼 SNS에서 퍼졌다.

정전 사태를 계기로 일부는 뜻밖의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햇빛이 쏟아지는 광장에 모여 누군가의 즉흥 연주를 다 함께 즐기거나 그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휴대전화를 치워두고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하는 이들, 가스스토브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해 촛불 아래에서 먹는 사진 등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어둠이 깔린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할 때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기뻐한 장면들도 SNS에 널리 퍼졌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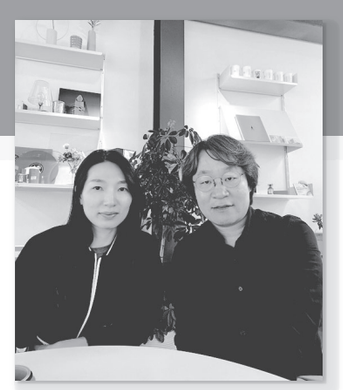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